

특별기고

AI 기반·주민 참여 중심 '동구형 그린뉴딜'



임택
광주 동구청장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여름 장마가 남긴 건 1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피해와 1만여톤에 가까운 수해 폐기물이었다. 광주 곳곳의 강과 호수는 하천에 떠밀려온 온갖 부유물로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도심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해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광역위생매립장도 연장 운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자가 늘면서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주택가와 길거리에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는 일상 생활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투기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속도가 해결하려는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동구의 쓰레기 배출량

은 생활폐기물 1만8,000톤, 음식물 폐기물 1만톤, 재활용품은 2,000톤에 이른다.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선포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45%인 동구는 광주 평균인 34%보다 높아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했다. 광주 동구도 이에 발맞춰 올해를 '쓰레기 없는 마을, 행복한 동구 만들기'로 정하고 2022년까지 매년 쓰레기 배출 15% 감량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참여 확대, AI기반 스마트환경 관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구형 그린뉴딜'을 위한 핵심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일회용품 제로(zero), 재활용 자원 업(up) 생활화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다. 식사 후 커피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테이크아웃 컵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동구는 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일회용품 제로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텀블러 소지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편의성 대신 환경을 먼저 생각하자는 일회용품 제로운동은 점차 일반 업소들로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공직자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지로 각종 행사나 회의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자원순환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수1동, 지산1동, 지원1동 등 3개 동을 자원순환마을로 지정했다. 지정된 3곳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동구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3개 동에는 60명의 자원순환해결사가 생활쓰레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동별로 현장에서 주민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셋째, 음식물 폐기물 다이어트 돌입에 나서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말 인구 10만명 기준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약 10만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104kg으로 광주 평균인 100kg보다 많다. 이를 위해 남광주해뜨는시장과 백조아파트에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처리감량기(RFID)를 설치했다. 동구는 RFID 설치로 시장 환경개선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점포의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30% 이상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마지막으 자원순환 실천과 더불어 '녹색산업도시' 비전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녹색 산업 선도

동구는 지난 8월 산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비교 사업 공모에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신청가구 409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공사, 집열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드는 태양열 설비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료, 난방비 절감이 예상된다. 커피찌꺼기라 불리는 '커피박'의 재자원화를 모색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모델도 만들어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저탄소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단일인 생각이 모든 쓰레기를 합부로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무심코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이다. '내가'에서 나아가 우리가 먼저 미래성장 모델로 '동구형 그린뉴딜' 정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자.

사설

'선박 폐엔진오일' 대책 시급하다

정정 전남 해역에 해마다 막대한 양의 선박용 폐엔진오일이 마구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포항을 기점으로 해마다 수십만 l의 폐오일이 버려지고 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수산당국이 철저히 실태 파악을 하고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목포수협을 통해 공급되는 선박용 엔진오일은 지난 3년간 49만 2,220 l 판매됐지만 수거는 10만 6,670 l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군수협도 지난해 5만 5,780 l를 판매했지만 폐유 반납량은 1만 4,600 l에 불과했다. 출항 이후 비좁은 선실과 안전장이 유류 교체된 폐엔진오일이 바다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 엔진 자체에서 흡수하거나 소모되는 10% 가량을 제외하고 교체된 폐오일 상당량이 바다에 흩뿌려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특히 폐오일을 통해 바다에 버려져나 일정한

물이 차는 선박의 특성을 악용해 야간에 배 밑창을 통해 오염수와 함께 방류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일반 판매점 제품의 경우 소위 '사제' 공급으로 수협 공급량과 맞먹는 수십만톤에 이르지만 판매량과 수거량 모두 집계조차 되지 않아 수산당국의 관리 점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산당국은 해양 오염사고나 투기가 아닌 이상 컨트론타를 수협과 판매업체가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어업인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정정 전남해역을 지키는 것은 전남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바다가 폐엔진오일로 뒤덮인다면 어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목포, 해남, 완도, 진도, 고흥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협과 지자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민주 보궐선거 공천 도덕성 후보로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잇그제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의 압도적 찬성, 공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스스로 만든 당헌을 스스로 번복했으니 할 말이 없을 터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근 전당원 투표를 실시, 86.64%라는 압도적 찬성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그들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다. 사실 야당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이 결정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전당원투표로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논란이 심한 결정을 당원들의 총의를 명분으로 원칙을 후회한 상황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도덕성이나 정의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의 지자체장 선거는 유권자 규모로 봐서 집권 여당이 건너뛰기엔 너무나 큰 선거이다.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또다른 비난을 살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선 사전 차원에서 도덕성이 탁월한 후보를 공천,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간 단체장 공석에 따른 지방행정 차질 및 수백억 원대의 보선비용 등에 대한 책임방안 강구도 필요하다. 성추문은 끊이지 않고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고민은 너무나 당연하다.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산천이 온통 적막 속에 잠겨 드는 일몰의 시간. 혈육과 보낸 고향에서의 하루를 살고 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클래식 소리마저 유순해진 차들은 하나, 둘 어둠의 침묵 속으로 사라져간다. 날짐승, 들짐승들 역시 서둘러 등지에 깃들었는지 간간히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숨소리만이 적막을 깨운다. 하늘은 별꽃들을 피워 올려 지붕이 되어주고, 밝음 속에서는 우뚝 우뚝 장엄하게 서 있던 산들도 큰 산이 작은 산을 품어안아 깊은 심상의 수목화처럼 선과 색의 경계마저 지워버렸다. 산기슭에 웅

가장기 불어 앉은 사람 사는 마을 또한 그윽한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불빛으로 전해지는 인가(人家)의 표정에는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작은 오두막에서 전해오는 아늑한 불빛이 더욱 정겹다. 창밖 풍경에 좀 더 지켜 듣고 싶었을 까. 창문을 내리고 긴 호흡을 뱉어내는 순간, 길옆에 있던 생명 하나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피하며 고개를 움츠린다. 모든 것을 품어 안아줄 것만 같은 밤의 아량 속에서도 소외되어있는 누군가가 있다. 주변의 초목들이나 발굽식물, 어디에도 어우러지지 못하고 머쓱하게 서 있는 초목화 한 그루. 계절은 가을이 저물어가고 겨울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데 초여름에 한창이어야 할 꽃이 어인 일로 눈앞을 스쳐 갔는지. 분명 인가에서 떨어져나와 홀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초목화였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피듯 꽃을 피우는 것은 물론, 주인에 대한 의리와 절개가 강하다는 속설로 예부터 문인들의 심상을 남기던 꽃. '화원의 모든 꽃들이 신분 상승과 부귀를 누리기 위해 집을 떠나버려도 대문 옆에 쓸쓸히 홀로 서서 주인이

빛과 어둠

돌아올 때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했다'는 전설의 꽃 축규화. 그리고 보니 밤길을 달리는 동안 내내 하루를 같이 보낸 동생 생각에 몰두해 있었던 듯하다. 언제부터인가 붉디붉은 축규화꽃을 볼 때마다 젊은 날의 동생 얼굴이 아릿하게 파고들곤 했다. 나이 30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동생은 어느 날인가 심한 근시 안경을 벗어버렸다. "세상이 또렷이 보이는 것이 싫어. 모두가 담벼드는 것 같아." 동생은 빛이 무섭다고 했다. 그리곤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부처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빛 속에서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어둠속에 안겨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안도를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 언젠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리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불꽃이라고도 일컬을 만큼 화려한 빛이지만 가까이 다가 가면 상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화상을 입고 만다. 그런 불꽃이 찾아들어 새까맣고 짙은 재로 변했을 때는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밤새,

해산의 고통에 시달린 어둠의 배를 가르고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삶의 모퉁이에서 잠시 길을 잃고 주춤 거릴 때마다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에서는 큰 위안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가을가을 거져가는 안스럽기 그지없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었던가. 빛이 환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승자의 것이라면, 어둠은 그것들로 이어지는 길목의 초입쯤이어서 아픈 이들의 가슴에는 더욱 먼저 다가서는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전래 동화 '해님 달님'에서 친구들은 모두 해님이 되겠다고 했지만, 꼭 달님을 고집했었던 일이 떠오른다. 스스로는 한 줄기의 빛도 가지지 못했으나 해님이 헤쳐가 남비해버린 빛을 모아 두었다가 행여 다칠새라 조심스럽게 어둠을 밝혀주던 달님이 무척이나 커 보였다. 그런 달님 옆에는 여러 별들이 모여있어서 밤하늘엔 항상 잔잔한 평화와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동화 속의 달이 되고 싶어지는 이 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인연의 별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슴속의 폐달에 힘을 가한다.

특지광장

화재시 '대피 우선'으로 인명피해 줄이자

야외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는 코로나 19 시대에 장밖으로 오색전란한 단풍과 파랗고 높은 하늘을 감상하고 싶다면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발생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는 연평균 4만 4,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인

해 매년 평균 1,856명이 부상을 당하고 325명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100건당 0.74명이지만, 대형화재는 1건당 3.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확대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화재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인명피해가 동반되기 마련인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비상대피 ▲119신고 ▲소화 활동 ▲상황파악 등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비상대피를 위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재

난약자 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 증가 우려가 있는 환경변화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대피우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송효선

국민의힘 5·18 특별법 통과 약속 지켜야

기지수첩

두 달여 만에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종진 비대위원장에게 광주시민들이 쓴소리를 내고 있다. 5·18 특별법과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사회부 기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비방·왜곡·납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5·18 국립묘지 방문 5월 영령들 앞에서 '무릎 사죄'를 통해 5·18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며 호남 민심 깨닫기에 나섰다. 뒤늦게나마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5·18 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 "법 자체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용은 입법 과정에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시민협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김종진 위원장의 방문에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지만 이미 발의된 게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5월 영령 사죄'를 통해 5·18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며 호남 민심 깨닫기에 나섰다. 뒤늦게나마 시대 상황을 반영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난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5·18 특별법과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 "법 자체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용은 입법 과정에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속히 5·18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40년 전 광주·전남 시도들에게 저지른 잔악한 학살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를 해야 시점이다. 국민의힘의 호남 행기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5·18 특별법 통과를 놓고서도 5·18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40년 전 광주·전남 시도들에게 저지른 잔악한 학살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를 해야 시점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전남매일) and Jeonnam TV. Includes phone numbers for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